

등록번호	여성가족과-9230
등록일자	2015.3.16.
결재일자	2015.3.16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보육행정팀장	여성가족과장	복지문화국장		
안창선	김선옥	03/16 이태욱		
협 조				

장애아 시설관련 및 숲체험 활성화 방안 간담회(2차)



서 대 문 구
여성가족과

장애아 시설 관련 및 숲체험 활성화 방안 간담회(2차)

2014.11.7 개최된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원장과의 1차 간담회 결과에 대한 처리상황 및 향후계획을 토론하고자 함.

【 개 요 】

□ 일 시 : 2015. 3. 24(화) 14:00~

□ 장 소 : 보건소 8층 미소지움관

□ 참석자 : 총17명

- 류미희 부암어린이집원장, 서대문구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원장 12명
- 여성가족과장, 정책보좌관, 보육행정팀장, 공원기획팀장

□ 안 건 : 1차 간담회 처리결과에 따른 향후계획 및 기타

- 장애아동 숲체험 활성화, 숲체험 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 대한 토론

□ 1차 간담회결과(2014.11.7) 주요사항 및 진행사항

- 아동들의 숲체험 활동은 장애, 비장애 아동 모두에게 최상위의 보육이자 교육임
- 인력지원, 차량지원 등의 예산지원 요청(건의)
 - 어린이집 : 자체 예산편성시 야외활동비를 증액 편성
 - 구 청 : 현장학습비 심의시 수납한도액(현재 연 20만원 이내)을 상향 조정
 - ☞ 인력지원 : 숲체험장(2명-푸른도시과) 배치
 - ☞ 예산지원 : 현장학습비(10,000원 인상 - 보육정책위원회)
 - ☞ 차량협조 : 장애아 통합반운영 어린이집중 차량이 없는 시설에
구청 차량 지원 검토(행정지원과)
- 학부모들은 일반아동과 함께 하기를 바라므로(장애아동이 사회성을 익히는데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함) 통합어린이집을 선호함
- 장애유형 다양하다 보니 시설과 치료사 등이 부족함
 - ☞ 치료사 근무 2개소 : 장애인 9명이상 ⇨ 인건비 100%지원(시비)

붙임 : 1차 간담회(2014.11.7) 주요내용

1. 장애아동 숲체험 활성화

가. 원장들의 현재 보육활동에 대한 내용

- 아동들의 숲체험 활동은 장애, 비장애 아동 모두에게 최상위의 보육이자 교육임
- 다만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현실적으로 다가가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고, 각 어린이집에서는 현재의 상황에 맞추어 많게는 1주에 3번, 적게는 한 달에 한번 정도 안산, 백련산 등 주위 숲을 이용하는 형편임

나. 보육행정팀장의 숲체험장 3곳 조성현황 설명

- 백련산, 인왕산 숲체험장, 백련산 잔디마당이 조성되어 있음
- 관내 어린이집 176개소, 유치원 27개소가 언제든지 사용가능하다 다만 운영의 질서를 위해 예약시스템을 도입하여 선착순으로 이용하게 할 것이고, 다만 장애아동이 이용한다고 하면 우선권을 줄 계획이다

다. 원장들의 건의사항

- 장애아동의 장애는 다양하다. 규정상 1대 3으로 보육하고 있지만 어떤 경우는 1대 1로도 보육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다.(뇌 병변, 자폐성, 지체장애 등)
- 장애아동이 야외활동이나 숲체험을 매우 좋아한다, 더 자주 야외활동을 위해 특별한 보조를 건의함, 즉 인력지원, 차량지원 등의 예산

라. 회의 마무리

- 2015년 예산편성 형편이 어려워 예산지원약속(인력, 차량)을 할 수 없다. 어린이집 자체 예산편성시 야외활동비를 증액 편성해 주시고, 내년 초 보육정책심의 위원회에서 현장학습비 심의시 수납한도액(현재 연 20만원 이내)을 상향 조정하는 안건을 건의해 보도록 하겠다.

2. 숲체험 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 대한 토론

가. 보육행정팀장

- 장애아동들의 건강한 보육활동을 위해 숲체험 장애아전문어린이집 건립을 구상하고 있다. 원장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

나. 원장들의 의견

-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규정상 12명 이상의 장애아가 있어야 하며, 정원의 40%은 일반아동도 입소할 수 있다.
- 학부모들은 자녀가 유아시기에 장애등급 받기를 싫어하여, 장애아 등록을 대부분 늦게하고 의사소견서만으로 어린이집에 입소 시킨다. 또한 보육도 일반아동과 함께 하기를 바라므로(장애아동이 사회성을 익히는데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함) 통합어린이집을 선호함
- 몇 년전 마포구에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이 있었는데 장애아가 일반아동보다 많다 보니 일반아동 학부모들이 다른데로 옮기고, 그 후 장애아동들이 통합어린이집으로 이동하면서 서대문구로 여러명이 입소한 적이 있다. 일반아동 학부모는 장애아가 10% 정도는 용인하지만 장애아가 대다수인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입소를 꺼리는 경우로 볼 수 있음

다. 기타 참고의견

- 통합어린이집에서 숲체험 활성화 필요하다
- 장애유형 다양하다 보니 시설과 치료사 등이 부족함
- EBS 숲유치원 참고
- 각 구 통합어린이집 및 장애아 수 파악 필요
- ※ 우리구가 통합숫자 많음, 연대, 이대, 명지대의 치료기관 이용하면서 우리구 통합어린이집 이용(추측)
- 특수학교 폐쇄현황 자료 찾기
- 용인 세움어린이집 현황 알기
- 마포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후 유치원에 배치하는 시스템 필요